

원 정등반 | 네팔 타르푸출리

몽벨리스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멈추지 고 타르푸출리 정점을 향해 올랐다.
오른 으로 안나푸르나 남봉이 웅자를 자랑하며 솟아 있다.

아마추어들, 히말라야 설봉에 오르다

동영상 san.chosun.com



원능선에 위치한 전진캠프(4,700m). 여러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안나푸르나 팡이 바라보인다.

간이 왔다. 약속대로 A조는 새벽 2시 기상이다. 바람 한 점 없고 둥근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있었다.

텐트 앞에 모여 작은 소리로나마 성공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친 뒤 3시10분 타르푸츨리 정상으로 향했다. 알뜰게도 전의를 다질 때까지만 해도 환하게 비춰주던 둥근 달이 전진캠프를 출발할 즈음 안나푸르나 남봉 뒤로 사라지면서 칙흑 같은 어둠이 몰려들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영돈씨의 발걸음이 더뎠다. 캠프를 출발해 30분간 리드하던 김창호 대장이 뒤로 내려서더니 “지금 이 속도로는 정상까지 오를 수 없다”며 좀 더 속도 내기를 당부하자 한영돈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나 때문에 모든 대원을 곤란하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겠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돌탑이 쌓여 있는 개념도상의 ABC(4,900m)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계원씨와 박종석 화백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 김창호 대장과 선두 그룹을 유지하더니 예상시간에 맞춰 해발 5,200m 높이의 플라토에 올라섰고, 뒤를 이어 A조에 비해 전진캠프에서 한 시간 게 출발한 B조 대원들도 한 명 한 명 올라섰다.



여명 속에서 설원을 가로지르는 대원들.



고정로프가 깔린 설사면 구간. 오른 히운츨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기 시작했다.

어슴푸레 여명이 밝아오면서 밤새 어둠 속에 몸을 숨겼던 타르푸츨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면은 거대한 수직 암벽을 이루고 있었지만 왼 으로는 설릉을 가파르게 늘어뜨리고 그 설릉은 신구츨리(Singu Chuli · 6,501m, 일명 Fluted Peak)를 거쳐 안나푸르나 동릉과 이어지고 있었다.

플라토를 가로질러 타르푸츨리 북릉으로 접근했다. 북릉으로 올라서는 급경사 설사면에는 이틀 전 세르파들이 고정로프 270m를 설치해놓은 상황이었다. 앞장서 오르는 박화백과 이계원씨는 세르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주마랑을 했다.

“와~.”

설릉에 올라서는 순간 온 세상이 찬란하게 바뀐 느낌이었다. 아침 햇살은 히말라야를 귀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했다. 안나푸르나 남봉에서 팡을 거쳐 주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고, 캅사르강(Khangsar Kang · 7,485m, 일명 록누아르)에서 타레강(Tare Kang · 7,069m, 일명 글레이셔둑)으로 이어지는 설릉은 부드러움의 극치였다.

닌 오현호씨는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해 원정기간 내내 통역을 담당하며 선배들의 사랑을 받았다.

대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몽벨 직원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가한 이수연씨는 코오롱등산학교 출신 산악회 회원으로서 여러 해 동안 산악 활동을 해왔지만 히말라야는 처음이었다. 아름답고 웅장한 설산의 아름다움과 현지인들의 순박함에 흠뻑 빠져든 이수연씨는 포카라에 몽벨 매장 하나 내고, 게스트하우스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는 무지갯빛 꿈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심한 위경련을 일으킨 스테프를 안전하게 하산시키기 위해 히말라야 설산 등정의 꿈은 접어야 했다.

오후 5시가 넘어서면서 안나푸르나 정상부를 감쌌던 구름이 짙게 걷혔다. 1950년 프랑스의 모리스 엘조그가 인류 최초로 올라선 8,000m 고봉인 안나푸르나는 역시 웅장했다. 특히 남벽은 더했다. 거대한 암벽에는 갈비뼈 같은 바위 능선이 여러 가닥 뻗어 있고, 바위 능선 사이의 가파른 골짜기는 상단부에 눈이 많이 쌓여 언제 눈이 쏟아질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전진캠프에 올라서자 주변 풍광에 모두 즐거워

저녁식사 전 장비 점검이 있었다. 만년설이 처음이고 전문등반 또한 경험이 거의 없는 대원들이라 보니 빌려 오거나 포장지 조차 뜯지 은 아이젠과 설상화가 잘 맞는지 의문이였다. 신발과 아이젠을 같은 사람에게서 빌려 온 이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따로 따로 빌려 온 사람들은 제대로 맞지 아 조절을 해야 했다.

김창호 대장은 베이스캠프에 도착할 즈음부터 걱정이 많았다. 무엇보다 바람이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카라에서 합류하기 전까지 한 달 넘게 안나푸르나를 등반한 김 대장은 시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로 향하던 중 파이팅을 외치는 몽벨리스트들.맨원부터 이계원, 박종석, 한영돈, 이희기, 오현호씨.



안나푸르나 남벽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원지대에 위치한 베이스캠프.

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바람이 불어대는 제트기류가 7,000m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대원들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히말라야의 계절 변화에 생소한 대원들에게 김 대장의 말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어쨌든 나는 오른다’는 마음가짐에 가득 차 있었고, 과식이 고소증을 불러일으키지 을까 걱정스러울 만큼 식욕도 왕성했다.





패기넘치는 아마추어 등산인들의 히말라야 설산도전

8,000m급 9개 고봉을 무산소로 등정한 김창호 대장과 함께하는 타르푸츨리 원정대가 베이스캠프에 들어선 것은 10월 28일 정오경. 5명의 몽벨리스트는 안나푸르나 남벽 베이스캠프(4,130m)로 이어지는 길을 따르다 모레인 빙하 건 능선에 흰 눈을 인 채 거대한 암벽을 이루고 있는 타르푸츨리 가눈에 들어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성공을 다짐했다.

기념촬영을 하느라 부산스럽던 대원들은 둔덕에서 100여m 아래 퇴석 빙하로 내려선 다음 먼지 폴폴 날리는 마른 빙하를 가로지르는 사이 말을 잃어갔고, 낙석이 빗발치는 급사면을 올라치는 사이

대부분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정오경 도착한 타르푸츨리 베이스캠프(4,200m)는 마음을 흥분케 했다. 축구장 네댓 개가 들어설 만큼 넓따란 베이스캠프는 안나푸르나 1봉(8,091m)과 팡(7,647m, 일명 Bharha Chuli), 남봉(7,219m) 그리고 히운츨리(6,441m)에 이르기까지 멋진 고봉들로 둘러싸여 고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 일원을 생크추어리(sanctuary), 즉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라 부르는가 보다.

“못 올라간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후 1시경 전원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몽벨리스트들은 고소증세가 살짝 온 듯 보였으나 모두 패기가 넘쳤다. 그 누구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만형격인 한영돈(54·디앤와이컴 대표)씨는 제법 체중이 나가는데도 칸데(Kande·1,770m) 출발 후 닷새간의 트레킹 동



전진캠프에서 바라본 마차푸차레. 전진캠프는 안나푸르나 내원의 조망대 같은 곳이었다.

안 20대 중반의 후배 대원에게도 뒤지지 는 체력과 적응력을 보이며 패기 있게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한씨는 별이 쏟아지는 촌롱(Chomrong·2,170m)의 밤하늘 아래서 “산을, 많은 것을 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고마운 안식처로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의 원천인 히말라야가 어떤 곳인가 늘 궁금하던 차에 이번에 운 좋게 선발되어, 회사 일을 과감하게 직원들에게 맡기고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오로지 스케치에만 몰두해온 박종석 화백은 베이스캠프에 와서도 그림 그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앉으나 서나 오직 그림 생각뿐인 박 화백이다. 박 화백은 2001년과 2003년 탐험가 박철암 교수와 함께 티베트고원 7,000km를 탐사하고, 2007년 봄에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두 달간 지내는 등 19년간 히말라야와 남미, 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며 5000여 점을 스케치한 한국 화가이자 오지탐험가지만 고산 등반은 처음이다.

대구 산사나이 이계원(46)씨는 모험적인 산행을 즐기는 이다.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지리산 태극종주, 설악산 태극종주, 영남알프스 실크로드 종주와 같은 장거리 산행을 즐기고 출국 전에는 훈련 삼아 72시간 종주도 했다고 한다. 대구등산학교 정규반에 이어 암벽반과 빙벽반까지 나왔

지만 전문등반보다는 도보산행에 몰입해온 이씨는 대화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다. 원정대원과 스태프뿐 아니라 지나가다 만나는 현지인이건 외국인인건 눈만 마주치면 대화를 나누려 애를 썼다. 외국어 회화 실력이 탁월한 것도 아닌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만의 능력이다. 이 모든 게 감성 넘치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이희기(37)씨는 등산학교 정규반을 나오고, 랑탕 트레킹도 해본 적이 있다.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산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받았고, 산을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등산학교를 나왔다. 이희기씨는 이번 원정에 참가하려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나 꿈을 꾸는 좋은 직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고민하다 타르푸츨리 원정대원으로 뽑히자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타르푸츨리 원정을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싶다는 게 그의 꿈이다.

막내 오현호(26·인하대 프랑스문학과 4년)씨는 졸업을 앞둔 시점에 참가했다. 귀국하면 분명 취직시험 합격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오현호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2008년과 2009년 청소년오지탐험대에 참가한 바 있고, 프랑스어 어학연수를 위해 스위스에서 1년간 지내기도 했다. 스쿠버다이빙과 응급구조강사 자격증에 한식조리사 자격증까지 지



고정로프가 깔린 설사면. 경사가 가팔라 보자들에게는 힘겨운 구간이었다.

이튿날 아침은 환상적인 풍광으로 시작되었다. 안나푸르나1봉 정상부부터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땅, 남봉, 히운출리 등 눈이순으로 날이 밝아왔다. 김창호 대장은 전진캠프로 향하기에 앞서 대원들에게 보행 요령과 호흡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복장은 맘이 살짝 날 정도가 적당하고,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숨은 깊게 들이쉬고 많이 뿔어낼수록 산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보행법은 칠순 노인이 어슬렁어슬렁 걷듯 하는 걸음입니다.”

셰르파들은 새벽 5시 반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대원들이 사용할 텐트를 전진캠프에 올려놓고 정상으로 이어지는 루트상의 위험 구간에 고정로프를 깔기 위해서다. 대원들은 트레킹 이후 늘 그래왔듯이 오전 8시 베이스캠프에서 출발해 어제 올랐던 낙석지대로 되돌아가 급사면을 거슬러 올랐다. 묘한 분위기였다. 급사면 위으로는 산양이나 염소가 살기에 알맞은 풀밭이었다. 풀밭 오른은 거대한 원 절벽이 자연 성곽을 이루고 있고, 원 위로는 완경사능선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의 전진캠프가 위치한능선이다.

히운출리가 눈에 들어오자 지난 9월 25일 북벽 등반 중 실종된 한국 산악인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착잡해졌다. 히운출리 북벽 등반을 시작하자마자 몰려온 안개와 함께 사라진 두 사람은 지금도 시신이 발견되지 고 있다. 가파르지만 부드럽게 느껴지는 능선길을 따라 오르는 산세와 조망이 한층 아름다웠다. 텐트 두 동과 네팔 현지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오늘 오전 타르푸출리 등정길에 나선 외국인들의 텐트다. 네팔 친구와 함께 정상을 향한 이들은 고정로프 없이 오르느라 애를 많이 먹었으나 우리 셰르파들이 고정로프를 설치해준 덕분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다.



셰르파들이 텐트를 설치해놓은 전진캠프의 높이는 해발 4,700m. 개념도상의 전진캠프에 비해 200m가 낮지만 눈이 거의 없어 하룻밤 묵기에 더 낫다는 판단에 이곳에 캠프를 설치한 것이다. 10시50분부터 11시 반 사이에 대원 모두 캠프에 올라섰고, 고소적응을 위해 두어 시간 머물렀다. 안나푸르나산군에 이만한 조망처가 있을까 싶다. 주봉에서 히운출리로 이어지는 안나푸르나 줄기뿐 아니라 안나푸르나 3봉(7,555m)에서 남서으로 뻗어내린 간드하르와출리(Gandharwa Chuli · 6,248m)~히운출리도 멋지게 바라보이는 곳이다.

대원들은 멋진 조망에 기념촬영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한편 벌렁 드러누워 낮잠을 자는 이가 있는가하면, 박화백은 그림 그리기에 빠져 있고, 몇몇 대원은 운영이나 촬영 담당 스태프들과 어울려 수다 떠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정말 환상적인 곳입니다. 지난해 마칼루에서 셰르파 니콜을 넘어 바룬체 빙하로 내려섰을 때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코스도 위험한 곳이 없고, 전진캠프에서 7, 8시간이면 정상에 설 수 있을 겁니다.”

베이스캠프로 내려와 2시간쯤 지나자 김창호 대장과 서성호 대원이 내려왔다. 5,200m 높이의 플라토까지 다녀온 김 대장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플라토까지 3시간, 플라토를 가로지르는 데 40분, 설벽 고정로프 구간 1시간 등 정상까지 적어도 8시간이면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선 상태였다.

휴식일인 이튿날 오후 작은 라마제가 열렸다. 라마제란 등반을 앞두고 셰르파들이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올리는 의식이지만 대원들도 함께했다. 우리는 라마제에 앞서 10년 전 안나푸르나 등반 중 사고를 당한 고지현옥씨와 지난 9월 25일 히운출리 북벽에서 실종된 청주 직지원정대의 박종성·민준영 악우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지냈다.



저녁식사를 마친 뒤 김창호 대장은 정찰등반시 촬영해온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 놓고 내일 이후의 등반에 대해 얘기했다. 한영돈·박종석씨는 김 대장과 함께 A조에 속하고, 나머지 세 대원은 서성호 대원이 인솔하는 B조로 정해졌다. 김 대장은 기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A조 실버터틀(silver turtle)팀에 당첨됐다”며 한방 먹었다.

대원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출발해 전진캠프에 올라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낮잠 시간을 갖기로 했다. 등반을 앞두면 마음이 조급해져 잠이 잘 오지 기 때문에 따뜻한 낮에 잠을 조금 자두는 게 좋다는 김창호 대장의 생각이었다.

“칠노인이어슬렁어슬렁하듯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튿날 전진캠프로 향하는 대원들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영돈씨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다”며 힘겨워했고 “배낭의 균형이 맞지 아예를 먹었

다”는 이계원씨는 아침에 사용했던 카메라를 어디에 둔지 모를 정도로 고소중에 시달리다가 전진캠프에 올라와 텐트에 들어가 드러눕고 말았다.

“와, 독수리다. 양 날개 길이가 2m도 넘겠는데.”
낮잠 자던 대원들이 텐트 밖으로 나와 서성이던 오후 5시경 거대한 히말라야 독수리 한 마리가 전진캠프 상공에서 빙빙 날아다녔다. ‘감히 내 동네에 웬 인간들이냐?’는 듯 못마땅한 모습이다. 몇 차에 걸쳐 하늘을 선회하던 독수리가 또 한 마리의 독수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자 대원들은 화젯거리가 없는지 무척 심심해하는 모습이었다. 아니, 등정 시도를 앞두고 모두 잔뜩 긴장해 있다는 표현이 맞을 듯싶었다.

저녁식사 후 박종석 화백이 정성들여 내놓은 보이차를 몇 잔씩 마신 대원들은 수시로 텐트 문을 열고 나와 불일을 보고, 다른 대원들도 깊은 잠을 들지 못하는 듯 부스룩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대원들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시간이 흘러 결전의 순

타르푸출리

안나푸르나 산군의 B급 트레킹 피크



플라토에서 바라본 타르푸출리. 가운데 설사면을 타고 능선에 올라선 다음 오른 정상으로 향했다.

타르푸출리는 해발 5,663m에 불과한 B급 트레킹 피크지만 히운출리(6,441m)에서 남봉(7,219m)~팡(7,647m)~주봉(8,091m)~타레강(7,069m)~강가푸르나(7,454m)~3봉(7,555m)~간드하르와출리(6,248m)~마차푸차레(6,993m)에 이르기까지 원형을 그리며 이어지는 안나푸르나 산군의 중앙에 위치해 조망대 같은 역할을 하는 설봉이다. 게다가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고 특별한 등반 기술이 요치 다는 점 때문에 봄·가을 많은 등산인들이 도전하는 설산이다.

등반 루트 등은 남동릉을 따라 이루어졌으나 대개 산 서 플라토를 거쳐 북릉에 올라선 다음 정상으로 향하는 루트를 따른다.

모레인 빙하를 사이에 두고 안나푸르나 남벽 베이스캠프(4,130m) 맞은 편에 위치한 타르푸출리(신구출리) 베이스캠프(4,200m)에서 정상까지 8시간 정도면 오를 수 있다고 셰르파들이 말하지만 등정률을 높이려면 해발 4,700m 혹은 4,900m 높이의 둔덕에 전진캠프를 설치한 다음 정상 공격에 나서는 게 좋다. 전진캠프에서 정상까지는 약 6시간 거리다.

장비·기술 전진캠프를 출발해 5,200m대 플라토까지는 특별한 기술이 나 장비가 요 없다. 그러나 플라토를 가로지른 다음 북릉으로 올라서려면 아이젠과 바일이 수다. 설상 등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고정로프를 설치한 다음 등반하는 게 안전하다. 고정로프 약 300m 소요.

북릉에서 급경사 정상 능선 구간 역시 보자들에게는 고정로프의 도움이 요한 구간이다. 약 100m 소요. 급경사 설릉을 올려치면 정상까지 완경사 능선이 100m쯤 이어지는데, 설릉이 좁으므로 추락하지 도록 조심해야 한다. 보자가 많은 경우 이 구간도 고정로프를 깔도록 한다. 약 100m.

타르푸출리는 B급 트레킹 피크답게 특별한 등반기술을 요하지는 으나 빙하가 형성된 고산이므로 이중화와 아이젠, 보온의류는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

등반 기간 타르푸출리 베이스캠프까지 5일, 베이스캠프 도착 후 타르푸출리 등반에 4일, 하행 캐러밴 3일 등 총 12일 정도 걸린다. 베이스캠프 전까지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이어지는 로지를 이용하면 숙식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타르푸출리 정상에 오른 몽벨리스트들과 스태프, 셰르파들.



하산길에서 주저앉은 박종석 화백을 서성호 대원이 일으켜 세우고 있다. 박 화백은 끝까지 포기하지 는 투혼을 보여주었다.

풍광에 넋을 잃고 카메라에 담느라 잠시 머무는 사이 박종석 화백과 이계원씨는 쉼 없이 정상을 향했다. 설릉을 주파한 다음 가파른 설릉을 타고 정상으로 향하는 두 사람은 몇 발짝 발을 옮기곤 숨을 몰아쉬거나 아예 주저앉곤 했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정점에 다가섰다.

뒤따라 정상에 올라섰을 때 이계원씨는 셰르파들을 얼싸안은 채 등정의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박종석 화백은 등정의 순간을 담기 위해 설봉에 주저앉아 스케치에 여념이 없었다. 몽벨리스트 4명 모두 눈앞에 펼쳐진 히말라야 풍광이 믿어지지

는 듯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캠코더로 감격의 순간을 일일이 촬영하느라 막판에 올라온 오현호씨는 학교 교기에 동아리방 깃발까지 꺼내 안나푸르나 남봉과 히운출리를 배경으로 멋진 등정 사진을 찍었다.

“아름다운 산! 몽벨! 정상을 향하여!”

등정의 기쁨을 누리던 대원들은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그제야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캐러밴 이후 출발 직전 외쳤던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쳤다.

“아름다운 산! 몽벨! 정상을 향하여!”

하산길, 박종석 화백은 한 발 한 발이 천근만근이었다. 정상을 향해 오르느라 온몸에서 힘을 다 짜낸 뒤라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한지를 꺼내 다시 한번 타르푸출리의 풍광을 담느라 온몸에서 기운을 짜냈다. 이계원씨는 사람대신 산과 대화를 나누려는 듯 이산저산을 골히 바라보았다. 이희기씨는 새로운 삶을 위해 산정에서 에 지와 영감을 충전한 듯 눈이 반짝였다. 오현호씨는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디딜 젊은이답게 한층 패기가 넘쳤다. 9일간의 산행 끝에 타르푸출리 정상에 올라선 이들은 이제 진정한 산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

글한석차장/사진 김창호 대장/그림 박종석 화백